별난 수집벽

권영필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외국 유학시절의 즐거웠던 기억 가운데 하나는 헌책방을 순례하는 일이었다. 책값이 싼 이점도 있거니와 가끔씩 희귀본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사고 싶은 책을 사지 못해 괴로운 때도 없지 않았다. 파리 유학시절 쌩미셸가의 한 서점에서 간다라미술 연구의 대가인 알프렛 푸셰의 대저 《간다라불상》(1912)을 만났으나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다. 몇 년 후 다시 그곳을 찾았으나 이미 사라진 후였다.

푸셰와는 인연이 있었던지 몇년 전 일본에서 학회를 마치고 일본친구와 함께 교토의 대학가 고서점을 뒤지다 거기서 1928년에 번역된 푸셰의 《불교미술연구》를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금상첨화로 거기에는 불어원본까지 부록으로 붙어 있어 여간 기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파리 고서점에서 구입한 폴 펠리오의 《돈황벽화집》은 내 서가를 빛내는 '국보급' 서적이 됐다. 1908년 돈황을 탐사한 펠리오는 이때 석굴벽화 사진을 모조리 찍어 1924년에 이 책을 출간했는데, 세계 최초로 돈황을 기록한 도록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한 책들 가운데 어떤 것은 불량품이 섞여 있어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책들을 펴낸 데가 세계 굴지의 출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제본과정에서 인쇄파지가 끼어들어간 것, 몇 페이지가 빠진 채 엮인 것, 숫제 다른 내용이 인쇄된 면 등 종류도 갖가지다.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이름 난 일본인과 독일인의 제품이 세계의 신뢰를 얻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인데, 불행하게도 이들 나라의 책에서 결함들이 발견됐다. 오카구라 텐신은 일본근세의 유명한 미술사가로서 그 당시 지식인의 상징처럼 일본에서 떠받들어지는 인물이었다. 그의 《동양의 이상》은 1903년에 당초 영어로 출판됐고, 10여년 전에 일본어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그런데 이 책을 사서 보니 10여페이지가 파지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문제의 독일책은 《세계 조각사》로 7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역시 10여페이지에 결함이 있다. 이것은 독일 대학가 길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아마도 출판사에서 폐기처분한 것을 불법 유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쨌든 결함은 결함이다. 우리 책도 이 반열(?)에 올라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모 출판사의 일어사전과 모 미술출판사의 미술책 등등이 그 모양이다.

처음에는 반품해서 바꿀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점차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바꿨다. 무슨 잘못 인쇄된 우표처럼 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해서인가. 혹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하고 남의 실수를 고소하게 여기려는 심사 때문인가. 두가지 모두 아니다. 내 논리는 간단하다. 그것들을 문명비판의 자료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첨단과학의 시대에도 기계과신의 사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대량생산의 산업사회가 지닌 맹점과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는 현대인의 허구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일이 눈으로 검증하고, 수작업에 의존했던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결손부분이 있는 책들을 우연히 몇 권 가지고 있게 된 셈인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책을 모아서 인류의 앞날을 걱정하는 전시회라도 열어야 할 것 같다. ●

출판저널 격주간 · 값 2000원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 · 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2 | 편집 732-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1174
E-mail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댁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 수협 · 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